

---

# 2022년 제16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2. 4. 15. ~ 4. 2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4. 15.	시청률	0.003

### 【총 평】

‘경제&이슈’의 ‘3월 취업자 83만명 증가, 고용률 상승 지속 방안’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숙박과 음식 등의 대면 서비스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고용시장 전반은 상당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3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기저효과가 소멸한 상황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고용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각 연령대 별 취업 현황과 증가세, 증가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등을 설명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알뜰신잡’은 무료로 씨앗을 대여해주는 씨앗도서관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3만 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까지의 전년도 고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고용률이 증가해도 대폭 상승한 느낌이었지만, 작년 3월부터는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83만 1000명이 증가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3월 경제활동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83만 1천 명이 증가했고 실업자 수는 34만 2천 명이 감소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61.3 % 증가했다. 실업률은 3.0%로 지난해와 비교해 1.3% 감소했다. 이는 고용 개선 효과이다.

산업별 고용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오미크론 변이로 숙박업과 음식업의 고용은 감소세로 전환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종은 증가했지만 도매, 소매업, 금융, 보험업종에서 감소세가 나타난 것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밖에 농림어업, 건설업 취업자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고, 교육과 예술, 스포츠, 여가 부분의 고용이 92만 명이나 증가했다. 제조업, 의료, 바이오 등 신산업 증가로 취업률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령대별 고용률 현황에서는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동반 상승했다. 특히 15세에서 29세의 취업률은 46.3%로 약 3%상승했으며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50대의 취업률은 76.7%로 이 연령대의 고용 안정화는 전체의 고용 안정화를 추론할 수 있는 지표이다.

‘알뜰신잡’은 무료로 씨앗을 대출해 주는 씨앗 도서관을 소개했다. 씨앗도서관에서는 책처럼 씨앗을 대출받아 재배한 후 수확한 씨앗으로 반납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납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씨앗을 키우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도 문의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4. 15.	시청률	0.000

## 【총 평】

자율주행차와 메타버스 등 최근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기술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마곡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각광을 받는 자율주행차 확산 사례와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로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는 사례가 4차산업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고령층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약과 주민의 호응이 함께 나누는 가치를 일깨웠다. 이 밖에 노래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평화의 노래 “전쟁을 멈춰주세요!”는 오디오가 충분히 살아 깊은 울림을 선사했고 전쟁의 아픔과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 【구성 및 내용】

- "알아서 멈춰요" 상암동 달리는 자율주행 셔틀  
서울시 마포구 5G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에서 카메라와 센서가 도로 상황을 살피며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는 7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초구, '메타버스 1인가구 지원센터' 첫 선  
메타버스를 방문한 1인가구는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친구를 사귀고 게임을 즐긴다.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메타버스 지원센터가 구축된 건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1:1마음상담, 강의, 축제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 사회적 가치 함께 나누는 '나눔장터' 성황  
경기도 이천시 도자예술촌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나눔장터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천시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생산품의 판로를 돕고,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나눔장터는 6월 12일까지 주말마다 열린다.
- 마곡문화거리, 빛 예술을 꽃피우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문화거리에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며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곡문화거리에는 경관 조형물이 설치되고, 버스킹 공연도 펼쳐진다.
- 박물관에서 즐기는 '화전놀이' 가족체험  
전남 영암군 전남농업박물관에서 화전놀이 체험행사가 열렸다. 화전을 만들기 위해 단호박가루, 복분자가루 넣은 찹쌀가루 반죽과 장식꽃, 대추 등을 준비했다. 화전에 쓰이는 봄꽃은 진달래, 유채꽃 등으로 이번 체험에는 12가구 50여 명이 참여했다.
- "전쟁을 멈춰주세요!" 평화 담은 노래  
뮤지컬 가수와 유학생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전쟁이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앨범을 발매했다. 음원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전액 기부한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4. 16.	시청률	0.069

### 【총 평】

세계는 지금 ‘한국어 열풍’편에서는 K-드라마와 K-팝 등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한국어 배우기 신드롬에 대한 상황, 원인, 한국어가 인기를 모으는 매력, 세계화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한류와 한글, 한국어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였다. ‘오늘의 생생 문화인’은 해외 한국어 교육의 산실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 출연해 해외에서 어느 정도 한국어에 대해 열광하고 있는지, 그 이유, 한국어 세계화 계획 등을 전달했다. 특히 한국어의 매력에 대해 배우기 쉽고, 재미있는 의태어와 의성어,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점을 분석해 설득력을 높였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는 올해 6월 한국 방문 예정인 콜롬비아 여성의 영상편지를 받고 인천의 여행지로 월미도의 월미바다열차, 송월동 동화마을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해외 한류의 인기로 한국어 열풍이 불고있는 현상을 집중 조명해 국내외에 한국문화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다.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한국어 열풍으로 K-드라마와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며 세종학당 수강대기자가 1만1천명에 이른다는 점을 부각시켜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aegyo(애교), chimaek(치맥), hanbok(한복), galbi(갈비), oppa(오빠) 등 한국어가 등재되었고, 해외 할리우드 스타인 크리스 햄스워드, 마크 러팔로, 톰크루즈 등 내한 당시 한글로 사인하며 한글 사랑을 드러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는 기관으로 82개국에 234곳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재단으로 설립되었고,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2021년 기준 8만1천 명이 수강중이며, 온라인 수강생을 합치면 16만 명 이상이 넘는다. 그동안 한국어를 수강한 사람은 58만 명에 이른다. 최근 한국어 열풍으로 각 나라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외국인 수가 많이 늘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수강대기자가 1만1천명에 이른다. 이집트는 2,822명, 터키는 2,506명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세종문화학당은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문화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데, 세종문화아카데미에서는 K-팝 댄스, 켈러그래피, 한복체험, K-푸드체험 등도 배울 수 있다. 세종문화학당은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매체에 집중해서 교육적 혜택이 더욱 확산되고 물리적 시간적 상황적 제약을 넘어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어학연수하고 있는 아누부띠 씨는 화상연결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해 “5년 전 우연히 한국음악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걸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게 되었으며 점점 한국문화에 빠져 BTS, 아이유 등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4. 16.	시청률	0.016

### 【총 평】

‘80대 황혼 부부가 사는 한가로운 통나무집’편은 80대 노부부가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매봉산 자락으로 귀촌해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귀촌의 아름다운 일상을 잘 전달했다. 26년전 매봉산을 방문했다가 야생화에 반해 귀촌을 결심했는데, 뜰과 주변에 사계절 꽃을 피우는 야생화가 무려 600여종이 된다. 이 밖에 서각을 숙련하고, 조각도 배우고, 한국의 자생하는 야생화들에 관심도 갖으며 노년의 여유 있는 모습이 잘 그려졌다. 손수 지은 집은 이백의 산중문답에 나오는 스스로 한가로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의 자한재(自閑齋)라고 이름 지었다. 핀란드산 적송을 사용하여 친환경적 가옥으로, 목욕탕을 중요시해서 사우나도 갖추었고 추억의 다락방도 있다.

### 【구성 및 내용】

강원도 영월군으로 귀촌해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차게 사는 모습은 귀촌의 아름다운 일상을 잘 전달했다. 평생 남의 집을 지어오던 그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집만큼은 스스로의 힘으로 짓겠다는 다짐으로 통나무집에 대해 새롭게 공부를 해가며 지금의 집을 완성했다. 집 이름은 이백의 시 ‘산중문답’에서 따온 ‘자한재(自閑齋)’로 짓고 ‘스스로 한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하고 싶은 미술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서 건축가가 된 남편은 조선소, 공장, 아파트, 서울대 정문까지 우리 건축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들을 남겼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귀촌을 결심했다. 영월의 야생화에 반해 귀촌을 하게 된 부부는 사계절 600여 종의 자생 식물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뜰과 산책길의 복수초, 종의무릇, 처녀치마, 등 낮선 이름의 야생화들을 동호인들과 공유하고 있다. 통나무집에는 남편만을 위한 작업실이 있는데 이곳에서 오래된 취미인 서각을 즐기고 있다. 일흔이 넘어서 시작한 새로운 취미가 이제는 전시회를 열 정도의 본업이 되었다. 남편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행복하다”며, 행복은 자기가 좋아서 몰두하면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먼저 제안한 귀촌이었지만 서울살이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기꺼이 동참한 아내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남편이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작업실에서 서각 작업을 하면 아내는 다른 취미 생활을 하며 따로 또 같이 평화로운 산촌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60대에 접어들어서 시작한 제2의 인생, 되돌아보니 어느 한 순간도 성실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고 회고하는 남편은 새로운 삶을 선택한 후에는 조금 느슨하게 자신을 돌보고 자연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야생화를 가꾸고,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했던 그림에 대한 꿈을 서각과 석조 작업으로 이어나가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4. 17.	시청률	0.123

## 【총 평】

최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이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핫이슈를 소재로 그 배경과 북한의 반응,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링컨함의 동해상 진입이 북한에 대한 명확한 경고성이라고 진단하면서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법이 논의된다는 점을 중시해 남북미 관계 개선과 현명한 대안을 주문했다. 4월 봄 운동회 등 북한 아이들의 축제를 다룬 '이슈텔링'에서는 남북 운동회 경기 종목이 비슷해 민족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미국놈 깨부수기' 같은 전투적 종목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 【구성 및 내용】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동해에서 머무르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운동회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북한에서 화성-17형 ICBM 발사를 비롯한 연이은 무력시위,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재개 움직임 등 핫이슈에 대한 배경, 대응 방안을 진단한 기획(167회)에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링컨함의 동해상 진입 아 이템을 다뤄 이슈의 흐름이 잘 파악됐다.

에브리함 링컨호 동해 진입은 북한의 4월 15일 태양절에 맞춘 측면과 미국과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도전과 응징의 관계가 있다. 모라토리움에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북한이 3월 24일 ICBM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움을 깬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고강도 무력도발을 할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많다. 중국이 미국편을 들 때 핵실험이나 초대형 미사일을 발사한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김영정 담화에는 미국에 대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핵 협상은 없고 원래 계획대로 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월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4월에는 항공모함이 동해에 진입해 무력시위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 5월에는 외교적 해법에 대해 한미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외교의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슈 텔링'은 이색 풍경 가득한 북한의 봄 운동회 모습을 소개했다. 북한은 봄, 가을 운동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겨울에는 국방체육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북한 운동회에서는 단체전 위주의 종목을 많이 한다. 10~20명이 다리를 묶고 달리는 통일열차 등 집단주의 정신이 필요한 운동 종목이 많다. 선수들의 눈을 가리고 다리를 묶고 하는 '눈 싸매고 권투', '미국 놈 깨부수기' 등 이색적인 종목도 있다. 2015년 이후 부터는 북한의 주적이 미국이라는 분위기가 완화되었고, 미디어가 발달되어 '미국 놈 깨부수기' 등의 종목은 없어졌다. 운동회에서는 박수채, 냄비뚜껑 등의 응원도구를 이용해 응원을 한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4. 17.	시청률	0.143

### 【총 평】

‘휠체어를 탄 회계사’와 ‘장애·비장애 구별 없는 세상’편은 중도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 사고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전해졌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구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기대하는 이야기가 주목도를 끌었다. 특히 혼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는 작은 가게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와서의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졌다는 이야기가 경종을 울렸다. 또한 본인은 퇴근을 하는 중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방인을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럽고, 미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안타까웠다. 장애인 화장실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인지시켜 주었고, 일반인 화장실도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구별 없는 세상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구성 및 내용】

휠체어를 탄 국제 회계사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큰 교통사고 이후 재활 과정에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강인함이 시청자의 공감을 얻었다.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힘든 역경을 딛고 당당히 국제 회계사가 된 주인공을 통해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들어보았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생활권이 보장된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사회적 제도와 인식을 갖춰나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주人公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복학을 기념해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서 점심 약속을 했는데, 휠체어로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도움을 준 친구들을 보며 “나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주人公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프로필을 찍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20대를 기록하기 위해서 찍었다는 점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근력 운동을 하면 멋진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스스로도 확인하고 싶어서 도전했다. 이밖에 혼자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미국에서는 작은 식당이나 가게에도 장애인 편의 시설이 꼭 갖춰져 있다는 점이 편리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비장애인들의 시선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을 전했다.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실시되었지만 그 법이 적용되는 시설이 적은 것이 문제이다. 모든 장소에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배려와 시설이 더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 공간이 필요하기보다 구분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4. 17.	시청률	0.000

### 【총 평】

‘스마트 농업의 시작 - 메트로팜’편에서는 미래형 농업기술로 각광 받는 스마트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도심형 스마트팜 기술인 메트로팜을 통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접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 영화 ‘고요의 바다’의 스마트팜은 실내 농장으로, 햇빛, 바람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스마트 농장이다. 환경이 통제된 상황에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팜이다. ICT 정보 통신 기술이 주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온실형, 완전 밀폐형을 혼용하고 있다. 스마트 팜은 IT 기술을 통한 농법이지만 결국 사람의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노지 농업과 공존하고 상승하면서 발전하는 농업의 미래를 잘 전달했다.

### 【구성 및 내용】

스마트 팜이란 통제된 환경 속에서 외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업으로 안정적인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밀폐된 공간, 채소 재배에 적합한 환경 조성으로 사시사철 채소 재배가 가능해졌는데, 이를 위해서 AI와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한 최첨단 농업 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농법이다. 스마트 팜의 필수 요소는 정보통신 기술 (ICT) 로 온실형 스마트 팜과 완전 밀폐형 스마트 팜으로 나눌 수 있다. 스마트 팜은 수직 농장, 실내 농장, 식물 농장으로 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땅이 다르고 물이 다르고 사람의 재배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쉬운데 스마트 팜은 노지 농업과는 달리 매뉴얼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확을 보장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특히 수확량에 있어서는 노지 농업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배 이상의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장 역시 정해진 곳에서만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골도 도시도 가능하며 최근엔 도시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 지하철 역사에 메트로 팜을 열었다. 기후와 날씨와 상관없는 수확량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팜은 기존의 노지 농업의 차세대 농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농법의 대체라기보다는 일반 농법과 공존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게 되면 홍수와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현재 높은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 젊은 인력이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업이 자체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탄소가 발생하는 농업 생산과 유통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스마트 팜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다. 스마트 농업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점은 인력 관리라 할 수 있다. 스마트 농법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식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성이 무엇보다 필수이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식물을 키워야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4. 17.	시청률	0.000

### 【총 평】

‘부실시공, 더 이상 반복은 안된다’편에서는 대형 인명피해를 낸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건물붕괴사고의 원인, 문제점 등을 탐사보도식으로 심층 진단하고 정부의 재발 방지대책을 알아보았다. 특히 두 차례의 부실시공 사례를 추적 취재하고 문제점을 정밀 진단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고발한 뒤 정부의 재발 방지대책을 알아봄으로써 국민생명 존중의 안전시공 메시지 부각했다. 또 붕괴 당시 처참했던 사고현장과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는 유가족의 생생한 증언 등을 통해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70년 서울 와우아파트 붕괴사고와 광주광역시 붕괴사고를 대비시킨 구성이 시청자 이해를 돕는데 기여했다. 다만 붕괴사고 발생이 지난해 10월, 1월11일인 점을 감안하면 시의성은 떨어지는 것이 흠이었다.

### 【구성 및 내용】

‘부실 시공, 더 이상 반복은 안 된다’편은 작년에 이어 올해 초에 걸쳐 연이어 발생한 광주의 부실시공 관련, 사건 내용을 전했다. 지난해 6월 철거작업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올해 1월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개요,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 와우아파트 붕괴사고의 교훈, 안전불감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내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던 재개발구역에서 건물이 도로로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도로 54번 시내버스를 덮쳤고 버스 뒤에 탑승했던 승객 9명이 희생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월 또다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당시 붕괴사고로 공사 작업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긴 수색작업 끝에 차례로 시신을 수습했다. 두 사건은 많은 희생자를 남겼다는 공통점 외 시공사가 국내 대형건설사라는 것이다.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가설기둥을 제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 공사감리기능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1970년 서울 마포구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는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건이다. 지은 지 4개월도 안된 건물을 붕괴시킨 것은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당초 건축 설계가 잘못되었고 공사비까지 낮게 책정되어 철근, 시멘트가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다. 이 사고로 3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실공사는 이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 상인들이 사고 전에 땅바닥이 갈라지는 등 전조증상이 있어서 민원을 넣어도 안전진단 한 번 해주지 않았다. 4년 전부터 공사 관련 민원이 1천 건 이상 접수되었고 공사나 안전에 대한 부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